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2시
저녁예배 7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7월 19일 (제803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칠야주일에배 워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진정한 배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험벳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약2:15~16). 이 성경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글을 지인으로부터 받았다. 인터넷 상에 도는 글인 듯하다.

한 이등병이 추운 겨울날 밖에서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소대장이 그것을 보고 안쓰러워 한마디를 건넸다. “김 이병,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다가 하지.” 이등병은 소대장의 말을 듣고 취사장에 뜨거운 물을 얻으러 갔지만, 고참에게 군기가 빠졌다고 열차려만 받아야 했다. 돌아와 찬물로 빨래를 계속하고 있을 때 중대장이 지나가면서 그 광경을 보고는 똑같이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을 얻어 하라고 했다. 신병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이번에는 취사장에 가지 않았다. 가 봤자 혼만 날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이번에는 나이 많은 선임하사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김 이병, 내가 머리 좀 감고 세수를 좀 하려고 하니깐 지금 취사장에 가서 더운물 한 동이만 가져오라해 이등병은 취사장으로 가서 취사병에게 보고했고, 금방 뜨거운 물을 한 동이 가져왔다. 선임하사는 “김 이병, 이 물로 언 손을 녹여가며 빨래하게 나.” 하며 등을 치며 웃고 갔다 그는 자식을 키워왔기에 부모의 심정으로 이등병을 배려한 것이다.

배려, 이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개념이 바로 서야 진정한 배려가 성립한다. 곧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배려다. 내 맘대로의 배려는 마치 여우에게 호리병에 음식을, 학에게 접시에 음식을 담아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진정한 배려, 이는 비둘기 값마저 없는 극빈자들에게 속죄제에 고운 가루로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한다. 하나님 사랑 속에 배려를 배워라.

거울을 보면 네 모습을 알 수 있다

“오정식아! 노를 쫓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찌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을 울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잠22:24~25).

“오정식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16:32).

지난 7월 14일 평택에 위치한 비전 예수중심교회 입당예배에서 총회장 목사님께서 담임 오정식 목사에게 낭독케 한 말씀이다. 이것이 이날 총회장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골자(骨子)다. “오정식아! 거울을 보고 웃어봐라. 그러면 거울 속에 비친 모습도 웃고 있단다.

교회에서의 서비스는 철저한 희생이며 마음을 A/S 해주는 거란다.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 하지. 그런데 목사가 버럭 화나 내고 명령이나 해낸다면 어찌 되겠니? 그러니 꼴을 따려면 꼴통을 발로 차지 말라는 말을 명심해라.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어줘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듯이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 말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라. 그러면 성도들이 시키지 않아도, 주문하지 않아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이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게 된단다.

사람이 경쟁력이야. 사과나무 두 그루가

다. 빈 그릇이 가장 큰 그릇이란단다. 네가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나처럼 네 오장육부를 땅에 묻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다보면 정말 세상말로 아니꼽고 힘든 일들이 많단다. 그러나 주님이 그랬듯이, 네 스승인 내가 그랬듯이 모든 것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려울수록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하지가 튼튼해야 건강하고,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어야 경제가 발전하는 거란다. 목사에게 기본은 바로 말씀과 기도야. 사도행전 6장 4절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라고 하지 않았니? 예수님처럼 습관 따라 기도하고,



비전 예수중심교회 창립감사예배(2015년 7월 14일)

화를 내봐라. 당연히 거울 속의 인물도 버럭 화를 내고 있지. 거울이 너의 성도들이야. 네가 성도들에게 화를 내고 호통치면 네 거울인 성도들도 맞받아 화를 내고 호통 칠 뿐 아니라 교회를 떠나고 만단다. 그런 교회에 누가 있으려고 하겠니? 널린 게 교회인데 말이다. 음식점에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다시 그 음식점을 찾을 사람은 없단다. 물질 드리고, 봉사하면서 목사의 성질까지 받을 성도는 없단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거울을 보고도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야. 네가 알아야 할 것은 고객은 품질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야. 그러니 네 스스로 품질을 높여야 한다.

있는데 주인이 한 그루에는 물과 거름을 주고, 한 나무에는 기름을 줬다 하자. 당연히 물과 거름을 준 나무는 사과를 주인에게 주겠지만, 기름을 준 나무는 썩어 죽게 되지. 이 이치를 네가 깨달았으면 한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나를 가르치는 자란다. 항상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점검하는 자가 되길 바란다. 최고의 적은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이란단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7:24)고 통탄했지. 그러니 너 자신에게 진실하고 남에게 정직한 자가 되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큰 그릇이 되라. 큰 그릇이란 그릇의 사이즈가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

를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비전교회가 평택에서 제일가는 교회가 될 것이다. 올해가 나에게도 다시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너에게도 목회의 원년이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겨 주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자.”

총회장 목사님은 마치 무릎 위에 아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하듯 이제 첫발을 내딛는 오정식 목사에게 자상하게 하나하나 가르치셨다.

이날 2층으로 영상을 중계할 정도로 전국 교역자들과 뜻을 같이 하는 장로 및 성도들로 성전이 가득했다. 비전 예수중심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신영서

jesus7857@gmail.com

하계산상집회

◆8월 3일(월) ~ 20일(목) ◆장성예수중심기도원 ◆문의:02)533-9191

◆호텔예약: 인터넷(www.jcc.tv)에서 10시 정각에 예약 받습니다.

7월 20일(월-첫째 주), 21일(화-둘째 주), 22일(수-셋째 주)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22:39~46)



습관이 네 운명을 좌우한다

습관은 익힐 습(習)과 버릇 관(慣) 자로, 몸에 익어 무의식 속에 나오는 행동을 말합니다. 한 번의 행동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어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부터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오는 것이 습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의 중요성을 잘 표현하는 말이며, 습관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이 마침내 바위를 뚫는 격을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좋은 습관을 들이고, 나쁜 습관을 잘라버려야 할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성공된 삶으로 자신을 인도하지만, 나쁜 습관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은 인생의 암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사소한 습관이 부자를 만들고, 사소한 습관이 건강한 사람을 만들고, 사소한 습관이 위대한 사람을 만듭니다.

차문현 펀드온라인코리아 사장은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 특별강연에서 “아끼는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3억 원을 모으려면 하루에 커피 두 잔 값만 아끼면 된다. 하루 1만원씩 복리로 모으면 1년이면 280만원, 10년이면 5,000만원, 30년이면 3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하며, “사회 초년생들은 한 달에 1만원이라도 꾸준히 모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되는 개념이 습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의 일입니다. 아이들의 등록금 전액을 동전으로 돌려 보낸

만들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것을 습관들이는 것도 좋습니다만, 작은 습관이라도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면접자들에게 급히 면접장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장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면접자들은 급한 마음에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 면접장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심사는 면접이 아니라 벗어놓은 신발로 결정되었습니다.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자들은 탈락, 급한 중에도 가지런히 신발을 벗어놓은 자들이 합격했습니다. 평소 작은 습관이 희비를 낳은 것입니다.

대화할 때 잘 웃어 주는 습관, 말을 잘

들어서 주고 맞장구쳐주는 습관, 상대를 잘 알아주는 습관으로 세계

적인 인물이 된 자가 있는데,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 습관 덕에 그녀는 영화배우로부터 약물중독자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충격과백을 이끌어내어 ‘오프라 윈프리 쇼’를 세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었고, 그녀를 20세기에 가장 성공한 흑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5분 늦잠 자는 버릇, 그거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당신을 게으른 자로, 인생의 낙오자로 만들 것입니다. 어린 것이 바늘 하나 훔치는 것이 별 거 아닌 거 같지만 나중에 소도둑이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언젠가 재벌 사모님이 보석을 훔치다 걸린 사건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돈이 없어서 보석을 훔쳤겠습니까? 무의식 중에 한 것입니다. 습관이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잠자리 정리하는 습관, 거짓말 안 하는 습관, 일 마무리 잘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이런 작은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

윗이 매일 물맷돌 던지는 것을 습관화하니 그것으로 골리앗을 때려잡았지 않습니까?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평생 화투를 쳐서 가산을 탕진한 사람이 뒤늦게 깨닫고 화투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손가락이 없으면 화투를 못 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손가락이 없으니 팔뚝에 화투를 끼고 치는 자신을 발견하고 대성통곡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분재를 해봤는데요, 어린 가지는 쉽게 잡히지만 몇 년 된 가지는 잡기가 어렵습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니다. 모 든 것이 습관이 오래되면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

로 이제라도 나쁜 습관이 있다면 고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찢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마5:29~30). 혁명적인 개혁의 정신으로 나쁜 습관을 잘라버리라는 말씀입니다. 혁명적인 정신이 됩니까?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는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행여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걸랑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주머니에 손을 넣는 습관을 버리려고 애썼지만 어느 순간이면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바지 주머니를 아예 꿰맸습니다. 과감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 후로 차츰 이 버릇이 없어

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 스펙을 쌓느라 이리저리 바쁘고 많은 돈도 투자하는데 스펙 중의 스펙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이미 지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 아름다운 인격이 최고의 스펙입니다. 그러므로 거울을 보고 웃는 얼굴을 연습해보세요. 습관이 될 때까지입니다. 행동도 우아하게 기품 있게 해보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말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걸음걸이부터 옷매무새까지 거울보고, 또는 영상으로 찍

위대한 사람에게는 위대한 습관이 있다

어 확인하면서 반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언어도 상스러운 말, 세상적인 말을 버리고 아름다운 말을 자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품격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누군가 그랬다. 작심삼일(作心三日)도 반복하면 평생이 된다고요. 작심삼일이라도 반복해보세요. 좋은 습관이 몸에 밸 것입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습관화해보세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흥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자는 그 속에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성공한 자는 그 속에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바로 지금 점검이 필요합니다.

작은 습관이 습성을 낳고 습성이 운명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좋은 습관은 인생의 약 나쁜 습관은 인생의 독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창피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또 학창시절에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시켰습니다. 제가 왜 그랬겠습니까? 돈의 귀중함을 일찍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성인이 된 아이들의 경제관념이 바로 잡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하루에 팔굽혀펴기 운동을 몇 개씩 한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매년 차를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우나 갈 때나 사무실에 나갈 때 걸어 다니는 습관을 들였더니 배가 많이 들어갔고, 지구력도 생겨 기력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저에게는 또 하나의 습관이 있는데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대강하는 일이 없습니다. 한 사람 앞이든 열 사람 앞이든 십만 명 앞에서든 대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저를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객원컬럼::

투명한 벽

17세기 아름다운 소녀 에반젤렌은 마을의 일등총각 가브리엘과 열렬히 사랑한 끝에 약혼하여 온 마을의 축복을 받았으나, 다음날(1755년) 영국군이 갑자기 나타나 강 제이주를 명하고 마을을 불태워 버린 후 남자들만을 강제 연행하여 캐나다로부터 멀리 남쪽의 미국으로 이송시키게 된다. 해안에 있는 수송선으로 끌려가는 가브리엘을 발견한 에반젤렌은 “건강하세요. 두 사람의 사랑만 굳으면 어떤 불행이라도 이길 수 있어요.”하며 사랑을 다짐한다. 그 후 아버지를 여윈 에반젤렌은 가브리엘을 찾아 방랑을 시작한다. 가브리엘도 나름대로 소문을 따라 에반젤렌을 찾아 방랑하지만 자꾸 길이 어긋난다. 일평생 그들은 미국대륙을 방랑하며 애인을 찾아 헤매는 동안 아름다웠던 젊은 날의 모습은 어느덧 나이 들어 백발이 성성하다. 에반젤렌은 필라델피아의 어느 교회에서 봉사하며 사는데 마침 그 마을에 흑사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 그녀는 죽음을 무릅쓰고 병자들을 돌보는데 문득 침대에 초라하게 병들어 누어있는 죽음직전의 백발노인 가브리엘을 발견한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이미 입도 움직일 수 없이 에반젤렌의 팔에 안긴 채 숨을 거둔다. 이 아름답지만 슬픈 이야기는 미국의 19세기 시인 롱 펠로우의 장편 서사시 <에반젤렌>의 이야기다.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यो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यो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यो”(신28:30)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큰 저주인가!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99% 다 된 것 같았는데 그만 투명한 벽에 걸려서 하루아침에 좌절과 패배를 맛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가! 이 모든 보이지 않는 벽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모든 일이 다 잘된 듯 했는데 왜 마침내 실패하고 마는 것일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곧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놓은 죄의 담이다. 투명한 벽에 막혀 육신이 병들고 사업은 실패하여 가정은 파탄 직전에 놓여 있지 않는가? 남모르는 슬픔과 불안으로 홀로 떨고 있는 것은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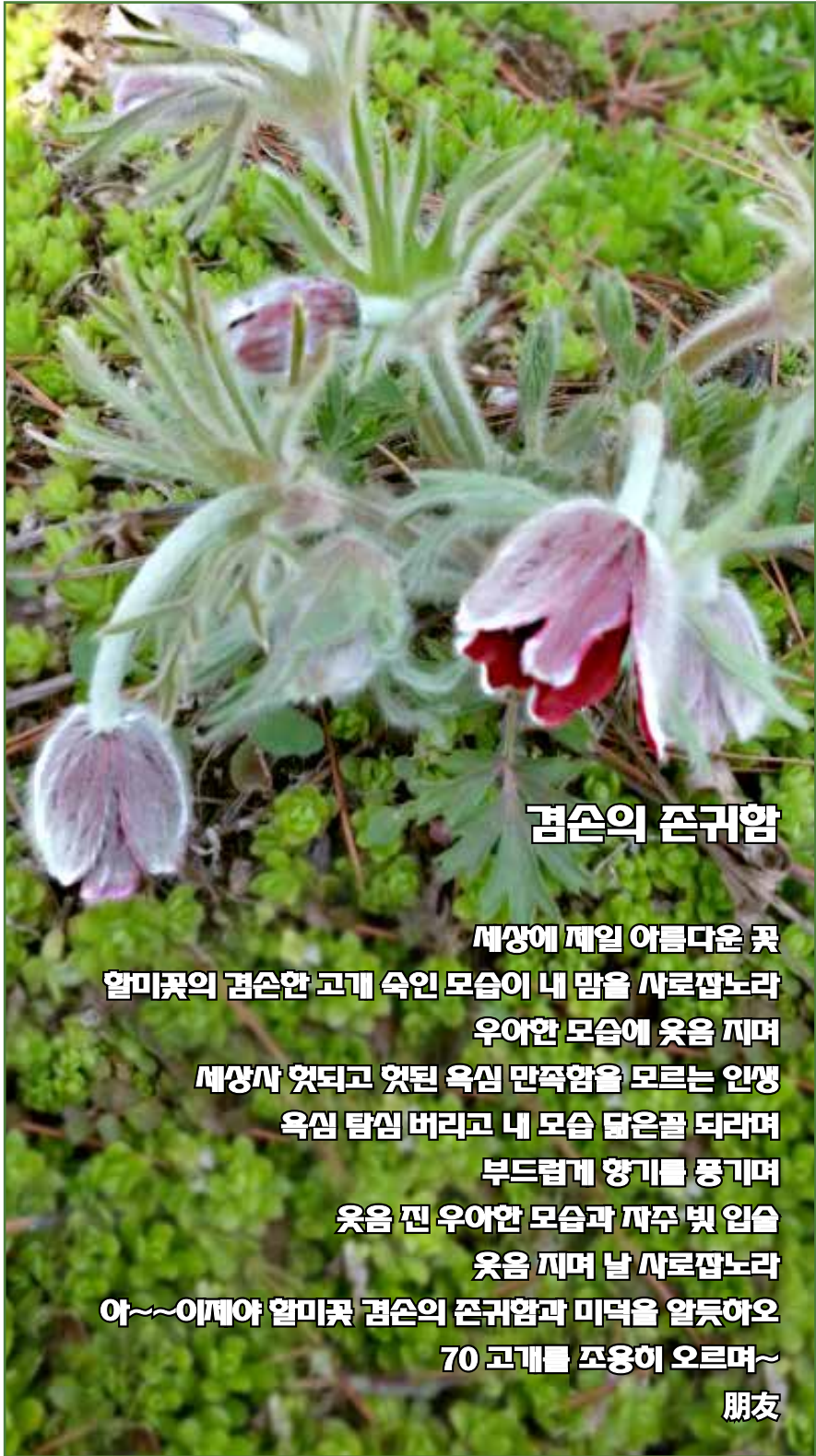
오직 예수만이 이 투명한 벽을 뚫어 버릴 수 있다.

회개란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그분의 도움으로 살려는 태도를 말한다.

회개하라!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던 투명한 벽을 허물어 주실 것이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찌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찌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시32:3~6).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겸손의 존귀함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꽃
알미꽃의 겸손한 고개 숙인 모습이 내 맘을 사로잡노라
우아한 모습에 웃음 지며
세상사 잊되고 잊된 욕심 만족함을 모르는 인생
욕심 탐심 버리고 내 모습 닮은꼴 되라며
부드럽게 향기를 풍기며
웃음 켜 우아한 모습과 따주 빛 입술
웃음 지며 날 사로잡노라
아~~이제야 알미꽃 겸손의 존귀함과 미덕을 알듯하오
70 고개를 조용히 오르며~
朋友

무지개의 참된 의미

최근 인터넷으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들어가 보니 이용자들의 프로필 사진이나 게시된 사진에 일곱 색깔을 띤 무지개가 많아졌습니다. 알고 보니 무지개가 동성애자 및 성소수자들의 성적 다양성과 그들의 인권이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지난달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있었던 퀴어문화축제(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이들이 벌이는 축제)와 그에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 단체들의 집회가 큰 사회적 이슈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덕분인 것 같습니다. 때마침 지난 6월 26일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이 문제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무지개가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약자)의 상징처럼 쓰이게 된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단순히 색깔이 다양하니까 다양성을 부각시키려고? 성경에는 무지개에 대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찾아보았더니 다음 두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창9:16),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앞드리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리라”(렘1:28).

성경은 무지개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땅을 심판하실 때 방주에 올라타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과 육축들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증거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을 통해 ‘부끄러운 욕심’이라고까지 표현하신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상징처럼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원인도 성경의 같은 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비롯한 온 천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지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짐승과 벌레의 우상으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알고 보면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구별하신 선악과를 보았도 하고 먹었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속여서 최초의 인간을 타락시킨 것도,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라고 속인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만드신 입술로 온갖 저주와 비방과 욕설을 퍼붓도록 속인 것도 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존재,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마귀의 활약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아직도 무지개를 동성애(자)의 심벌(Symbol)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신앙논객::



귀를 기울이세요

전국 지교회 및 여러 교육부에서 수련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번 주 전국 지교회 교역자분들께서는 기도원을 방문하셔서 수련회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제작하셨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신 기도원 직원분들과 교역자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천국잔치에 한 영혼이라도 더 데려가고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심방하시며 애쓰는 교사, 조장, 부조장 등 예수중심 모든 리더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 방송촬영을 위해 다녀간 한의사 선생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녹화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며 보약을 해주고 싶으니 진맥을 받으려 한의원으로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반복되는 밤샘작업과 지친체력에 링거를 맞으며 영양보충을 하고 있었는데 보약은 하나님이 주신 상 같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예수중심 젊은이들에게도 1년에 딱 한번 먹을 수 있는 귀한 보약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보약은 바로 제19회 전국청소년연합수련회로, 유통기한이 중동등부는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대학청년부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예수중심교회 젊은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영·혼·육에 알맞은 기도와 말씀, 찬양이라는 약제로 오랫동안 달여 만든 ‘내 영혼의 보약’, 이 귀하고 값진 보약 먹으러 예수중심기도원으로 향합시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오정식 목사 부부



비전교회 전경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 드린 비전 예수중심교회 담임 오정식 목사님을 만났다.

요. 도움을 주신 분께도 이번 기회에 인사를 하시면 좋겠네요.

오 목사: 2014년 11월쯤 인천에서 내려와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평택에서 목회를 하기 위해 저는 24년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에서부터 창립예배를 드리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 번 깨달은 것은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내가 돈을 주랴, 기도를 해주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 깨닫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장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교육전도사님과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자: 새로 지은 교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오 목사: 교회 이름은 기도하다 어떻게 하면 선한목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그래, 예수=우리 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증거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우리의 비전은 오직 예수입니다.

기자: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리고 가장 후회되는 일은요?

오 목사: 목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수함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자로서의 순수함을 잃어버려 끝장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수함을 상실하면 변질된 것이고, 목회가 생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안에 있는 순수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매일 저와 싸우고 있습니다.

후회요? 있지요. 속초에서 있었던 일인데, 주어 담지 못한 실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실수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에 재갈을 무는 심정으로 말에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 총회장 목사님께 평소 드리고픈 말씀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주세요

오 목사: 이초석 목사님께는 늘 죄송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뿐입니다. 달리 뭐라 표현할 수가 없네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자: 비전교회의 비전과 목사님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오 목사: 우리 교회의 비전은 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입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기자: 신영서

jesus7857@gmail.com

::나도 건강할 수 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자 - 변비편

예로부터 조상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다. 먹고 자고 싸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치료를 하다보면 이러한 기본기능에 문제가 생겨 고통 받는 환자들이 많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잘 먹기 시작할 때 발달과 인지가 향상되고, 깊은 우울증에 빠진 환자가 잠을 잘 자기 시작하면서 우울증에서 벗어나며, 치매에 걸린 분이 소대변이 좋아지면서 치매증상이 호전되기도 하듯이, 복잡한 어려운 병들도 기본기능이 향상되면서 병이 자연스레 좋아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소에도 관리를 잘해야 한다.

오늘은 중요한 기본기능 중에서도 변비를 한의학으로 고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변비는 의외로 누구나 쉽게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지만, 이야기하

기 걸끄러운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거나 그냥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증세를 완화해줄 뿐이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장기간 어려움을 겪다가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한의학에서 변비는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기허(氣虛)변비
(기운이 허하여 생기는 변비)
2. 기울(氣鬱)변비
(순환이 안 되어 생기는 변비)
3. 혈허(血虛)변비
(혈액과 진액이 부족하여 생기는 변비)
4. 열성(熱性)변비
(열이 가득차서 생기는 변비)

종류별로 치료하는 방법도 다른데 기허변비는 인삼이나 마, 황기와 같은 기운을 내는 약초로 허한 기운을 보충하며, 기울변비는 향부자, 진피(귤껍질)약초로 장기능을 순환시켜준다. 혈허변비는 당귀,

천궁과 같은 약초로 장에 혈액과 진액을 공급하여 채워주고, 열성변비는 갈근(葛根)이나 알로에 같은 약초들로 장에 쌓인 열을 내리어 치료한다. 변비는 치료와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식습관이 가장 중요한데 수분섭취는 일 5~6컵 정도가 적당하고, 시금치, 셀러리,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오이와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들과 호두, 검은깨, 참기름과 같이 기름기가 있는 유지류를 꾸준히 자주 섭취해야 한다. 변비에 주의해야할 음식들로로는 카페인, 자극적이고 매운 음식, 바나나, 치즈, 아이스크림, 소화하기 어려운 육류나 패스트푸드 종류의 음식은 피하는 게 좋다. ‘대장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조절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주신 육체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삶으로 말하는 리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다. 간디 앞에 무릎을 꿇은 어머니는 “선생님 제 아들을 도와주세요. 아들이 설탕을 너무 좋아해요. 건강에 나쁘다고 아무리 타일러도 안 듣는군요. 그런데 아들이 간디 선생님을 무척 존경해서 선생님께서 설탕을 끊으라고 하면 끊겠다고 합니다.” 간디는 소년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도와드릴 테니 보름 뒤에 아드님을 데려오십시오.”

“저희는 선생님을 뵈러 아주 먼 길을 왔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마세요. 제 아들에게 설탕을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 주세요.”

간디는 다시 한 번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보름 뒤에 다시 아드님을 데려 오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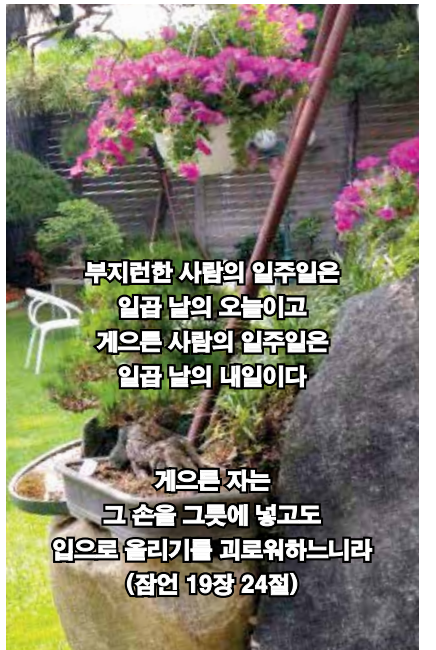
보름 뒤, 그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다. 간디는 소년에게 “애야 설탕을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니 먹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그 어머니는 고마운 뜻을 전하면서 간디에게 물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름 전에 제가 아들을 데리고 선생님을 찾아 뵈었을 때 왜 보름 후에 다시 찾아오라고 하셨습니까?”

간디가 대답하길 “실은 저도 설탕을 좋아합니다. 보름 전에는 저도 설탕을 먹고 있었거든요. 아이에게 설탕을 먹지 말라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설탕을 끊어야 했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대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 교수는 “리더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뒤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리더이다.”라고 했다. “타인에게 조언하듯 네 삶을 살아라.”는 말처럼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삶으로써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찌라도 그 일은 믿으라”(요10:37~38).



부지런한 사람의 일주일
입금 날의 오늘이고
게으른 사람의 일주일
입금 날의 내일이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곳에 놓고도
입으로 울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잠언 19장 24절)